

잡도리

▶ 김규민, 서예준, 김민재, 박신후(명지중학교)

우리 동네를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잡아라!

장려상

리포트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남녀 차별 때문이다.

영 상

팩트체크: 저출산의 원인은
남녀 차별 때문일까?



각오한마디!

안녕하세요.

잡도리팀의 김규민, 서예준, 김민재, 박신후입니다.

잡도리는 준비와 단속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저희팀은 잡도리처럼 뉴스 기사를
팩트체크하는 일에 대해 잘 준비하고,
거짓과 오류를 엄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팩트체크를 통해 뉴스 기사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과 탐구심을 키우겠습니다.

팩트체크 리포트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남녀 차별 때문이다.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저출산은 한국에 큰 문제입니다.

기사는 저출산과 남녀 차별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미래의 인구와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저출산 현상이 국가의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1. 무슨 내용을 찾을 계획인가요?

-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된 기사
- 통계청 인구조사
 - :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총인구와 증감률 흐름
- 한국 사회의 남녀 불평등 사례
- 남녀 불평등과 직업 환경에서의 차별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지수
 - : 유리천장지수, 성별 임금 격차, 성차별 지수 등

- 저출산 현상과 남녀불평등과 직업 환경에서의 차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나 보고서
- 남녀 불평등과 직업 환경에서의 차별 외에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다른 요인들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 저출산 해결방안

2. 어떤 형태의 자료를 찾을 생각인가요?

- 신문 기사, 통계 자료나 그래프, 보고서, 논문, 전문가(해당 분야의 교수님)의 인터뷰

3. 어떤 방법으로 팩트체크 할 계획인가요?

- 여러 출처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는다.
- 출산율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팩트를 확인한다.
- 연구보고서/학술 논문 분석
 - : 남녀갈등과 성차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분석한다.
- 정보와 자료에 대한 반론이나 다른 관점을 고려하여 주장을 검증하고 수정한다.

체크해보기

01 찾아보기

물어보기

직접해보기

반론의견

뉴스 기사에 대한 근거 조사

1. “한국 저출산 원인은 남녀갈등… 여성 헤어롤은 ‘반향’ 상징” | 중앙일보

한지혜 기자(<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2868#home>) 2023.04.05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분석하면서 근본 원인으로 ‘남녀 갈등’을 꼽았다. 한국 사회의 남녀 불평등과 직업 환경에서의 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이 의도적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 이를 ‘출산 파업’으로 규정했다.

2. “성별간 불신·증오…한국 저출산 근본 원인은 ‘젠더전쟁’” | 연합뉴스

김동호 기자(<https://www.yna.co.kr/view/AKR20230322130900009>) 2023.03.22

한국의 출산율과 혼인율 하락은 성별 간의 관계 악화로 인한 것이라는 외신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성역할의 불일치와 성차별로 인해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3. “기록 또 깼다” 세계꼴찌 0.78명 쇼크… 외신 본 韓저출산 원인 | 중앙일보

하수영 기자(<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2570>) 2023.02.23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3년부터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양성평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높은 교육비와 집값도 출산율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라고 했다.

4. 한국, ‘일하는 여성 환경’ 유리천장지수 10년째 선진국 꼴찌 | 연합뉴스

장재은 기자(<https://www.yna.co.kr/view/AKR20220308052200009>) 2022.03.08

한국은 올해 유리천장지수에서 11년째 29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리천장지수는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다. 한국은 남녀 임금 격차, 여성의 노동참여율, 관리직 여성 비율 등 세부 지표에서도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 여성의 사회적 권한 역시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30년째 1위인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 31.5% 차이, 왜 날까 |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9231>) 2022.06.15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2020년 남성이 여성보다 31.5% 더 받았다. 여성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짧을수록, 55~64세 여성이 임금을 적게 받을수록 임금 격차는 커졌다. 경력단절과 ‘유리천장’이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이다. 육아휴직의 안정성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임금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된다.

6. 여성 10명 중 6명,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못했다 : 여성 : 사회 : 뉴스 : 한겨레

박다혜 기자(<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27930.html>) 2020.02.13

여가부, 2019년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어려움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10명 가운데 6명이 사용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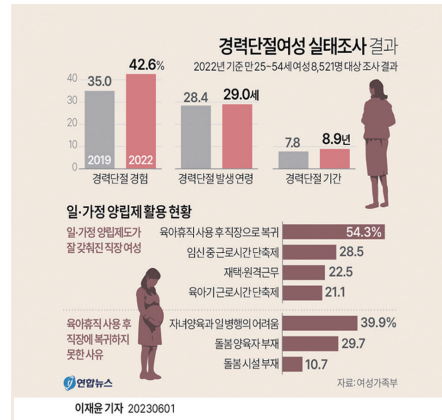
재취업 후 임금도 단절 이전보다 낮아졌다.

경력단절 여성은 구직활동 시간 확보 부족, 원하는 근로조건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 경험이나 능력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7. “결혼·출산·돌봄 때문에”... 여성 10명 중 4명 경력단절 |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94444?cde=news_m) 2023.06.01.

한국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출산·육아 등 때문에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결혼, 임신·출산, 양육, 가족돌봄 등 때문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42.6%였다. 이는 지난 2019년(35%)보다는 7.6%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 사교육비 부담 등

- 결혼 자체가 줄고, 늦게 하는 추세

- 경제 불황과 코로나19 영향

• 저출산 영향

- 인구 자연 감소, 고령화 가속화

- 경제 활력 저하, 생산·소비·투자 축소

- 노동·연금·교육 개혁 어려움

• 저출산 대책

- 기존 재정 살포식 대책 한계 인식

- 젊은 세대의 삶의 질 개선 필요

- 주거·육아·교육·일자리·지방 균형 발전 전반적 대책 마련 요구

8. 2월 출생아 첫 1만명대...“2041년 인구 5000만명 붕괴” | 중앙일보

정진호, 신성식 기자(<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8245#home>) 2023.04.27

-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1981년 이후 가장 적다.

- 올해 1~2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줄었다.

-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구 자연감소 40개월째

-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 2041년에는 인구가 5000만 명이 붕괴할 것으로 예상된다.

9. 280조도 소용 없었다... 출산율 0.78 쇼크 ‘만년 세계 꼴찌’ | 중앙일보

기기환 기자(<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2322#home>) 2023.02.22

• 저출산 심화

-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970년 이래 가장 적음

- 혼인 건수도 19만2000건으로 최저 수준

• 저출산 원인

10. 아이 2명 꿈 날아갔다... “낳아보니 알겠다” 맞벌이 부부의 현타[출산율 0.78의 나라]

| 중앙일보 황수연, 채혜선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5486#home>) 2023.03.08

• 이상과 현실의 간극

- 3040 부부들은 이상적으로는 2명의 자녀를 갖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1명이나 없는 경우가 많다.

- 경제적 부담,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공백, 노산 등이 출산 계획에 영향을 준다.

• 저출산 정책의 방향

- 정부는 결혼·출산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양과 질의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하여 자녀에게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트레이드 오프-어느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하여야 하는 경제 관계)

11.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청년들에게 필요한 저출산 정책은 주거 지원과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mohw.go.kr) 2023.04.25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5961&SEARCHKEY=TITLE&SEARCHVAL=UE=청년들

“청년들에게 필요한 저출산 정책은 주거 지원과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

-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에서 219명 청년들의 저출산 정책 제안 청취
-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분야는 ‘주거 지원’
-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이 그 뒤를 이어

12. “저출산 해법은 ‘삶의 질’ 개선... 교육·노동·주거 불균형 해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92221434961319>) 권해영 기자 2022.09.26

-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 인터뷰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라며 “노동시장 진입 경쟁으로 교육이 양극화되고 다시 노동과 주거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악순환에 빠지면서 아이 낳기 힘든 사회가 됐다”고 진단했다.

13. “214개 저출산 대책, 절반으로 축소...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할 것” 2023.04.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0201601>) 강진규 외 3명

인터뷰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18년간 예산 280조원 쏟아부었지만
-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도 지출
- 직접적으로 쓴 건 佛의 절반에 그쳐
- 현금성 지원,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 출산 장려 서비스는 다 누릴 수 있어야
- 혼인 줄어 인구반등 당분간 어려울 듯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논문 자료

[논문] 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kisti.re.kr)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DIKO0011081726#>

저자 - 최문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국내석사),

발행년도 : 2007년, 총 페이지. 80p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한국 사회의 남녀 불평등과 직업 환경에서의 차별을 지적하고 있다. p32-33

[보고서] 직장 내 남녀 차별 인식 및 현황조사 (kisti.re.kr)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800022414>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이동선, 참여연구자 - 정윤미, 김희

발행년월 : 2017년 12월, 등록번호 - TRKO201800022414

여성이 노동시장 진입 및 경력 유지, 퇴직까지 전 과정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을 조사한 보고서이다. p50-113

[보고서]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의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kisti.re.kr)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900002446&dbt=TRKO>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전기택, 참여연구자 - 이선행,

발행년월 : 2018년 10월, 등록번호 - TRKO201900002446, 과제고유번호 - 1105013939

임신 및 출산의 경험과 직장 내 겪는 인사상 차별 경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보고서]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의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re.kr)

<https://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age=1&idx=122964>

연구자 - 전기택 / 이선행 / 손성림, 발간년도 : 2019, 총 페이지. 174p

최근 5년간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재 조사와 심층 집단

면접 결과를 통해 임신과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불공정한 대우 출산 후 직장 복귀 실태 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통계조사 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는 질적인 정보를 보완하였다.

[논문] 고용상 성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kisti.re.kr)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DIKO0009021501&dbt=DI KO#>

저자 - 유경희(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국내석사) 발행년도 : 2013년, 총 페이지. 95p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들은 고용에서부터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고용된 후에도 임금, 승진, 배치, 교육 기회, 퇴직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p32-41

[보고서] 저출산 정책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kisti.re.kr)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2000006061&dbt=TR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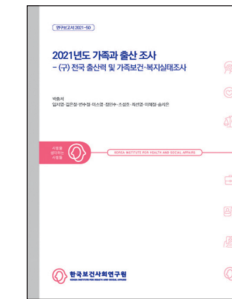
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책임자 - 손연정, 참여연구자 - 김근주, 발행년월 : 2018년12월, 등록번호-TRKO202000006061, 과제고유번호-1105013148

[논문]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사례와 연계를 중심으로 (kisti.re.kr)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DIKO0014549996&dbt=DIKO#>

저자 - 김순자 (고려대학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국내석사) 발행년도 : 2017, 총 페이지. 7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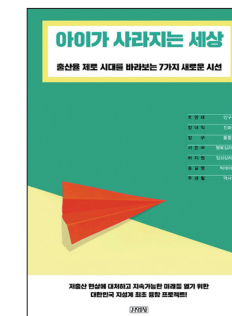
[책]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 (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 박종서
발행연도 : 2021
페이지 : 446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 2021-5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9~49세 1만2640명의 성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94명이었다. 또한 결혼 당시 출산 계획도 10명 중 8명(80.3%)이 “있다”고 했고 계획 자녀 수 평균은 1.93명이었다.

[책]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



저자 : 조영태, 장대익, 장구, 서은국, 허지원, 송길영, 주경철
출판사 : 김영사
출판연도 : 2019년 05월 15일

이 책은 출산률 제로 시대를 바라보는 7인의 새로운 시선을 담은 책이다. 기존의 누구나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진화학자, 수의학자, 심리학자, 뇌과학자, 빅데이터 전문가, 서양사학자, 인구학자 7명의 시각으로 바라 본 출산률이 왜 낮은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담았다.

관련 사이트 조사

1. KOSIS 국가통계포털 - <https://kosis.kr/index/index.do>

- 추계인구('23) 5,156만명
- 출생아수('22) 249,000명
- 합계출산율('22) 0.780명
- 사망자수('22) 372,800명
- 기대수명('21) 83.6세

2. 통계청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225>

2021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한국의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알 수 있다.

- 출산율: 0.81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올해는 0.7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생아 수: 26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8백 명 (-4.3%) 감소했다.
- 월별로는 12개월 모두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며, 1월 (9.6%), 3월 (9.2%)에 출생아가 가장 많았고, 12월 (6.6%)과 11월 (7.6%)에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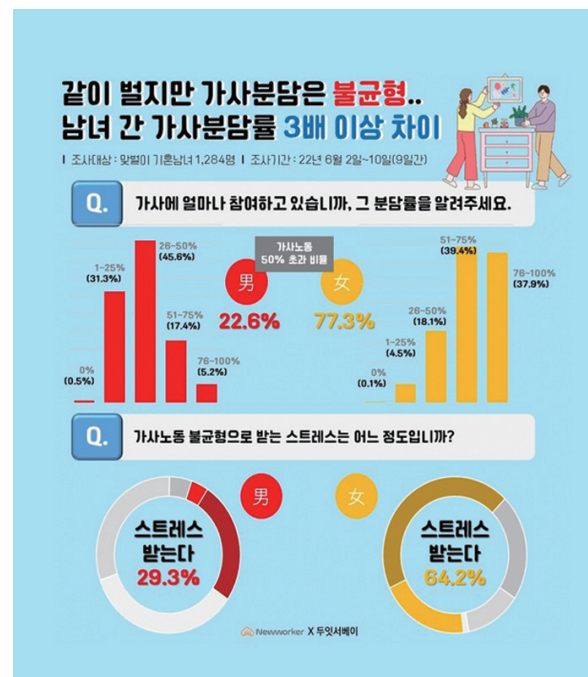
3. 취업포털 '인크루트' 맞벌이부부 가사노동 관련 설문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616_0001909863 222.06.16

맞벌이 기혼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같이 벌지만 가사분담은 남녀 불균형.. 男 22.6% VS 女 77.3%

가사노동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응답, 남성 29.3%, 여성 64.2%



[서울=뉴시스]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 정도 그리고 스트레스' 설문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사진=인크루트 제공)

4. 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가을호 발간 <https://www.kostat.go.kr>

이 간행물은 2021년 가을호로, 경제·사회·인구 통계 현안 분석 및 인공지능·데이터 과학의 국가통계 적용에 관한 글들이 실려 있다. 그중에서 “초저출산 경험 및 회복 국가의 특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김수영 과장과 송현정 사무관이 작성한 글이 있다. 이 글에서는 OECD 회원국을 초저출산 경험에 따라 분류(미 경험, 회복, 지속)하고 국가별 저출산 관련 지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초저출산 지속 국가로 미 경험, 회복 국가에 비해 삶에 대한 긍정적 경험지수 (61.0)가 낮고, 청년 실업률(9.9%→9.8%)은 감소추세가 보이지 않으며, 여성 고용률 (56.7%)이 낮고, 남성·여성 근로자의 임금 차(34.1%)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미 경험 국가는 저출산 문제를 겪지 않았거나 겪고 있지 않은 국가로, 삶에 대한 긍정적 경험지수(75.5)가 가장 높고, 청년 실업률(10.4%→8.7%)이 감소하였으며, 여성 고용률 (67.6%)이 높고, 남성·여성 근로자의 임금 격차(14.6%)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 국가는 저출산 문제를 겪었으나 회복한 국가로, 삶에 대한 긍정적 경험지수 (68.5)가 중간 수준이고, 청년 실업률(11.0%→10.8%)이 유사하게 유지되었으며, 여성 고용률(64.4%)이 높고, 남성·여성 근로자의 임금 격차(18.0%)가 작은 것으로 보였다.

(※ 초저출산이란 출산율이 1.3 미만인 국가를 말한다.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출산율이 2.1 미만인 국가는 저출산 국가라고 부르며, 외부에서 이민자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5. 성평등 지수 순위와 출산율 비교

1)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 2022 <http://gender-equality.or.kr>

(성 평등 지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0은 완전한 불평등을, 1은 완전한 평등을 의미한다.)

- 한국은 성 격차 순위에서 146개국 중 99위를 차지했다.

- 한국의 지수는 0.689로 경제 참여 및 기회, 교육 참여, 건강 및 생존, 정치 참여의 네 가지 영역에서 각각 0.671, 0.993, 0.973, 0.118의 점수를 받았다.

2) 국가별 비교 총 출산율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field/total-fertility-rate/country-comparison/>

- 성 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출산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성 평등 지수 1위인 아이슬란드의 출산율은 1.7로 세계 평균인 2.3보다 낮다.
- 성 평등 지수 3위인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1.5로 세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 성 평등 지수 4위인 스웨덴의 출산율은 1.7로 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인 1.6 보다는 낮다.
- 성 평등 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대체로 출산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성 평등 지수 142위인 아프가니스탄의 출산율은 4.0으로 세계 평균보다 매우 높다.
- 성 평등 지수 143위인 시리아의 출산율은 2.9로 세계 평균보다 높다.
- 성 평등 지수 144위인 이라크의 출산율은 4.4로 세계 평균보다 매우 높다.

4) <https://doi.org/10.4054/MPIDR-WP-2020-036>

5) <https://doi.org/10.4054/MPIDR-WP-2020-007>

6)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8156700502> 이웅 기자 2022.03.08.

7) 통계청 - 합계출산율(OECD회원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7_OECD

6. 2019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_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832

전국 만 25~54세 기·미혼 여성 6천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 재취업 시간, 일자리 변화, 취업 욕구, 정책요구 등을 파악했다.

-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35.0%로 2016년 조사 때(40.6%)보다 5.6%포인트 감소했다.
- 경력 단절 후 재취업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7.8년으로 2016년 조사 때 (8.4년)보다 0.6년 줄어들었다.
- 경력 단절 이후 새로 구한 일자리는 전 직장에 비해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2022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_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308

여성가족부가 만 25~54세 여성 8천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만 25~54세 여성 중 한 번이라도 경력 단절을 겪은 사람은 42.6%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35.0%) 조사 때보다 7.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력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8.9년이다.
- 일터를 떠난 직접적 요인으로는 절반가량이 '긴급한 자녀 돌봄 상황에서 대응 방안의 부재'를 꼽았다.
- 경력 단절 이후 새로 구한 일자리는 전 직장에 비해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도는 증가했으나, 육아 휴직 사용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사유로는 자녀 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 민고 돌봐줄 양육자 부재 등을 들었다.

찾아보기

02 물어보기

직접해보기

반론의견

☎ 보건복지부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 - 전화 인터뷰

Q1. 저출산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저출산의 원인은 한가지로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불균형한 소득 분배, 집값 상승 등으로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출산 후에도 일과 가정을 모두 꾸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 증가, 인구 고령화, 양육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합니다.

Q2. 저출산 해결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참고 해 주세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계획으로,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가 추진됩니다. 영아수당은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지원되며,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도 추진됩니다.

- 0~1세 영아수당 신설, 영아기 집중투자 / 3+3 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직 문화 정착 / 다자녀가구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 가족 지원 투자 지속 확대 및 저출산·고령사회 투자예산 재구조화 등

- 신중년의 계속 고용 지원, 기초연금 확대 등 다층소득보장체계 강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국 확대 등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화 지원

※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출처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7>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2178064845>

▶ 여성가족부 홍보담당관실 한고은 사무관 - ‘장관과의 대화’ 서면 인터뷰

Q1.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함.

→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저출산의 대표적 원인으로, 청년층은 초 경쟁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결혼·출산보다 개인의 직업적·경제적 성취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 고용 불안정성,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성인 이행기가 지연되면서 결혼·출산을 포기하게 됨.

Q2. 저출산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 건강 지원 등 5개 핵심 분야를 핵심으로 한 정부의 대책을 발표했음.

여성가족부는 이중 일·육아 병행, 돌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함.

우선, 맞벌이 가족 등 사내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약 8만 가구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확대(약 25만 가구)하고,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정부 지원액도 확대할 계획임.

- 지금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서비스 이용 요금을 최대 85%~15%까지 지원하였다면,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른 지원기준을 추가하여, 자녀수에 따라 가중되는 양육부담을 대폭 경감 하겠음.

-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믿고,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공·민간 돌봄인력 양성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국가 자격제도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작년에 도입한 가족 친화 인증 ‘최고기업’ 제도를 활성화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특히, 최고기업에는 남성 육아 휴직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급여의 차액을 보장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illegible]

일하고 싶은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재직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국 인구학회 총무이사 신인철 - 메일 서면 인터뷰

Q1.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저출산은 결혼가치관 변화로 인한 결혼으로의 절대적 이행률 저하와 자녀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따른 출산 기피현상이 직접적 원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자녀 양육/교육비용의 증가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Q2.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력 단절이 저출산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은 여성의 경력 단절과 사회인으로서의 포부를 좌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출산하는 자녀수를 줄이는 것일 겁니다.

Q3.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현재 어떤 수준이고, 어떤 방식으로 강화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실 수 있나요?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상당부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체감율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양육에 한해서는 획기적으로 소득기준에서 벗어난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Q4. 이민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 출산율이 높이는 대안으로 이민 정책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남 아시아에서 오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율이 무조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즉, 이민자도 한국에 들어오면 같은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직면하는 현실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출산율이 반드시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임여성 또는 출산/결혼 인구의 절대적 수가 많아져서 출생아 수 자체는 증가할 수 있으나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5.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인구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인구구조는 출생, 사망, 이동으로 결정됩니다. 한국 전체로 보면 저출산은 출생자 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피라미드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Q6. 경제적, 사회문화적, 인구학적 요인 중 어느 것이 저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출산/양육비를 포함하여 경제적 문제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교육 시키고 결혼시키는 비용 자체에 대한 부담이 문제일 것입니다.

Q7. 저출산 문제와 연관된 다른 사회문제들(고령화, 인구절벽 등)에 대한 시각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는 출생, 사망, 이동으로 결정됩니다. 저출생상황에서 사망자는 줄지 않고 청장년층이 타지역으로 이동한다면 지역단위에서는 인구절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Q8.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나 편견은 무엇이 있나요?

→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다라든지, 여성이 문제라든지 하는 편견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1.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출산은 결혼기피관 변화로 인한 결혼으로의 절대적 이행을 저하와 자녀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따른 출산 기피현상이 직접적 원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자녀 양육/교육비용의 증가와 미적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4. 이민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출산율이 높이는 대안으로 이민정책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율이 무조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즉, 이민자도 한국에 들어오면 같은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직면하는 현실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출산율이 반드시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임여성 또는 출산/결혼 인구의 절대적 수가 많아져서 출생아 수 자체는 증가할 수 있으나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민정책이 가진 한계는 명확하기에 오히려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7. 저출산 문제와 연관된 다른 사회문제들(고령화, 인구절벽 등)에 대한 시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는 출생, 사망, 이동으로 결정됩니다. 저출생상황에서 사망자는 줄지 않고 청장년층이 타지역으로 이동한다면 지역단위에서는 인구절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력 단절이 저출산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사회인으로서의 포부를 좌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출산하는 자녀수를 줄이는 것일 겁니다.	5.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인구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인구구조는 출생,사망, 이동으로 결정됩니다. 한국 전체로 보면 저출산은 출생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피라미드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8.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나 편견은 무엇이 있나요?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다라든지, 여성이 문제라든지 하는 편견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3.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현재 어떤 수준이고, 어떤 방식으로 강화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실 수 있나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분야를 아우른 것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상당부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체감율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양육에 한해서는 획기적으로 소득기준에서 벗어난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6. 경제적, 사회문화적, 인구학적 요인 중 어느 것이 저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출산/양육비를 포함하여 경제적 문제입니다. 여전히 전통적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으나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는 비용 자체에 대한 부담이 문제일 것입니다.	***** 신민철 도함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처장/학생이력지원센터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조교수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전동관 212호 이메일: incshin@uos.ac.kr 전화번호: 02-6490-2748 / Fax: 02-6490-2724 In Chol SHIN, Ph. 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Cheonmong Hall, #212 Seoulstripdaero 163, Dongdaemun-gu, Seoul, 02504, Korea Email: incshin@uos.ac.kr Tel: +82-2-6490-2748 / Fax: +82-2-6490-2734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메일 서면 인터뷰

→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사람인데, 제가 하는 말이 100% 옳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한국의 가족주의

한국은 임신, 출산, 육아, 진학, 취업, 결혼 등 인생의 모든 중요 사항에서 가족 단위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보니 ‘남녀가 눈 맞아서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애를 낳는다’가 안 되죠. 철저하게 계획해서 아이를 낳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걸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소위 ‘임출육’에서 젊은층이 선뜻 시작하지도 못한 채 이탈하는 현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2) 한국의 노동시장

한국은 대기업의 정규직, 공무원, 전문직 등 소위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나쁜 일자리’의 구분이 크고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걸 다들 알고는 있지만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과 2가 합쳐지면 최악의 결과가 나오죠.

내 자식에게 사교육을 통해 ‘인생의 꽃길’을 깔아줘야 한다는 압박, 그러지 못할 바에야 낳지 않는 게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적 모순.

해결 방법은 노동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사람인데, 제가 하는 말이 100% 옳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한국의 가족주의
한국은 임신, 출산, 육아, 진학, 취업, 결혼 등 인생의 모든 중요 사항에서 가족 단위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보니 ‘남녀가 눈 맞아서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애를 낳는다’가 안 되죠. 철저하게 계획해서 아이를 낳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걸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소위 ‘임출육’에서 젊은층이 선뜻 시작하지도 못한 채 이탈하는 현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2) 한국의 노동시장
한국은 대기업의 정규직, 공무원, 전문직 등 소위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나쁜 일자리’의 구분이 크고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걸 다들 알고는 있지만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과 2가 합쳐지면 최악의 결과가 나오죠.
내 자식에게 사교육을 통해 ‘인생의 꽃길’을 깔아줘야 한다는 압박, 그러지 못할 바에야 낳지 않는 게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적 모순.
그래서 해결방법이 뭐냐... 저는 그래도 1보다는 2가 제도적 문제니까 인위적으로 해결이 좀 더 쉽게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노동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지점도 중요하겠지만요.

저는 칼럼니스트로 오래 일해왔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만드는 것에만 익숙하지, 어떤 이슈를 다양한 방면에서 균형 있게 다루는 걸 잘 못합니다.

검색하다 알게 된 통계청의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첨부 파일로 보내드릴테니 이해영 학생과 친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노정태 드림.



🗒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조사 (설문조사)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남녀갈등, 불평등과 직업 환경에서의 차별 때문이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 남녀갈등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2. 불평등한 직업 환경에서의 차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2가지 질문을 적고 O, X 칸을 나눠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다.

- 조사 대상: 명지중학교 선생님들, 명지전문대·명지대학교 학생들, 학교 앞 시민들 (남·여 20대~50대)
- 조사 인원: 100명

설문 조사 결과

1. 남녀 갈등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한다 - 41명 / 생각하지 않는다 - 59명
2. 불평등한 직업 환경에서의 차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 38명 / 없다 - 62명

→ 남녀 갈등이 저출산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8명 더 많았다.

→ 불평등한 직업 환경에서의 차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24명 더 많았다.

(조사 대상이 남녀로 성별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는 선정 방법, 설문지의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차별 경험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근거 1:** 여성은 남성보다 출산 후 직장 복귀율이 낮으며, 이는 여성에게 부여되는 성역할 기대와 성차별적인 인식 때문이다.

➡ 반론 1

여성들은 남성보다 출산 후 직장 복귀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과 성향 때문일 수 있다.

➡ 재반박

한국은 29개 OECD 국가 중 유리 천장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로, 여성이 남성보다 상위 직책에 진급할 기회가 적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도 35%로 OECD 평균인 14.1%보다 훨씬 높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8052200009> 장재은 기자 2022.03.08)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의 60%가 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평균 임금이 감소했다. 한국 여성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성별 임금 격차와 가사 및 육아의 무거운 부담을 겪으며, 이로 인해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력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료들은 여성의 출산 후 직장 복귀율이 단순히 선택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의 결과다.

- **근거 2:** 여성은 남성보다 출산 후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이는 가족 내에서의 역할 분담과 지원이 불균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반론 2

남성은 여성보다 출산 후 자녀 양육에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남성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때문일 수 있다.

➡ 재반박

- 출산 후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여성의 의무가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다. 자녀는 부모가 함께 만들고 키우는 존재인데, 왜 여성만 자녀 양육에 더 많은 비중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부모로서의 역할 분담과 지원이 공평

하게 이루어져야 자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

- 남성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출산 후 자녀 양육에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변화할 수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 작성하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 외신들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근본 원인으로 '남녀 차별'을 꼽았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남녀 차별이 여성들의 출산 의욕을 저하 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의 유교 문화와 가부장제로 인해 남녀 간의 사회적 성역할 변화가 지체되면서 성차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여성들이 '출산 파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 과연 남녀 차별 때문일까?

우리는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팩트체크 한 결과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남녀 간의 소득 격차와 경력 단절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출산 후 평균 3년 6개월 동안 경력을 단절하며, 재취업 시 평균 53.9%의 소득 감소를 겪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출산 후 재취업률은 2018년 기준으로 45.1%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이 출산과 경력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하고,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든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남녀 간의 가사 분담 불균형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비율은 여성이 85.4%, 남성이 14.6%로 남녀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가사와 육아에 소요되는 시간도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 평균 2시간 30분 더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이 출산 후 가정과 사회에서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고, 출산을 희망하지 않게 만든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생애에 걸쳐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 비율은 35.0%에서 42.6%로 뛰었고,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7.8년에서 8.9년으로 늘어났다. 임신·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 등이 갖춰져 있는 회사에서는 그 이용률이 높아졌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 여성들은 고스란히 경력이 끊긴 셈이다.

이러한 경력 단절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고, 낮은 출산율과 높은 노령화율을 증가시킨다.

한국의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1. 경제적 요인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경제적 불황이나 불균형한 소득 분배 등이 출산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2.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 증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동시에 꾸려야 하므로 출산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

3. 교육 수준의 상승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에 대한 선택지가 더 많아지고, 일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출산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

4.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 구조가 소가족화되면서 부모님과 자녀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이 증가하여 출산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5. 인구 고령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출산 가능한 연령대가 감소하고, 부모들의 노령화로 인한 건강 문제나 재정적인 부담 등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6. 수도권 인구 편중 분포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로 인해 지나친 경쟁, 취업난, 낮은 출산율, 높은 집값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출산과 육아를 위한 환경을 악화시킨다.

7. 양육에 대한 두려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양육의 어려움과 돌봄의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한다.

따라서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남녀 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만이 저출산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교육비 부담, 주거 환경, 사회적 지원 체계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다.

✔ **결론:**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남녀 차별 때문이다.’이 주장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남녀 차별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주장은 외신들의 분석에 근거하고 있으며, 출처와 신뢰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성평등 지수 순위(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 2022)와 국가별 비교 총 출산율을 보면, 성 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출산율이 낮은 반면, 성 평등 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대체로 출산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녀 차별이 저출산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사의 주장은 저출산 문제를 단순화하고 과장한 면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교육비 부담, 주거 환경, 사회적 지원 체계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출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이 어렵다. 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경우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금, 의료, 복지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이를 부담하기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출산과 육아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출산 급여나 양육비를 주거나, 육아 휴직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육아 시설을 늘려주는 등의 방법이다.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출산 장려금, 임차 가구 주거비 경감,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의 방안이 있다. 또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잘 조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좋은 일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출산과 육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바뀌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12월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인구 정책의 계획이다.

이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영아 수당 신설, 영아기 집중 투자

- 3+3 육아 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 휴직 문화 정착

(※ 3+3 육아휴직제는 2022년부터 새로 도입된 육아휴직의 일종이다. 이 제도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 휴직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엄마가 3개월 육아 휴직을 하면 월 최대 300만원을 받고, 아빠도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월 최대 300만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모가 모두 아이를 돌보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해도 적용된다.)

- 다자녀가구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 가족 지원 투자 지속 확대 및 저출산·고령사회 투자예산 재구조화

- 신중년의 계속 고용 지원, 기초연금 확대 등 다층소득보장체계 강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화 지원

이 계획은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의 연장으로 마련되었으며, 그 목표는 ‘생산적이고 활기차고 행복한 저출산 고령사회’이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다 만들고, 다른 부처들의 계획을 검토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고 분석하는 일을 한다.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며 출산·양육 지원,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가족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 중 일·육아 병행, 돌봄을 중점적으로 추진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시행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 인구 고령화를 완화하여 노령 인구의 부양비와 건강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노령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인구 감소를 막아서 생산 가능 인구나 소비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국가의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가 인구 정책 계획을 철저히 추진하여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미디어 콘텐츠

팩트체크: 저출산의 원인은 남녀 차별 때문일까?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있는 20대부터 40대의 남녀에게 저출산 문제의 다양한 요인들을 알려주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 자신의 결혼과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시민들에게 팩트체크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것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것이다.

➡ 상세설명

오프닝: 저출산 문제에 대한 외신들의 분석과 한국의 현실을 소개하면서, 저출산의 원인이 남녀 차별 때문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겠다고 안내한다.

본론 1: 남녀 차별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와 현상을 소개하고, 남녀 차별이 저출산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한다.

본론 2: 남녀 차별이 저출산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 평등 지수와 출산율의 상관관계와 다른 요인들을 소개하고,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 시민들의 인터뷰

본론 3: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성 평등 정책과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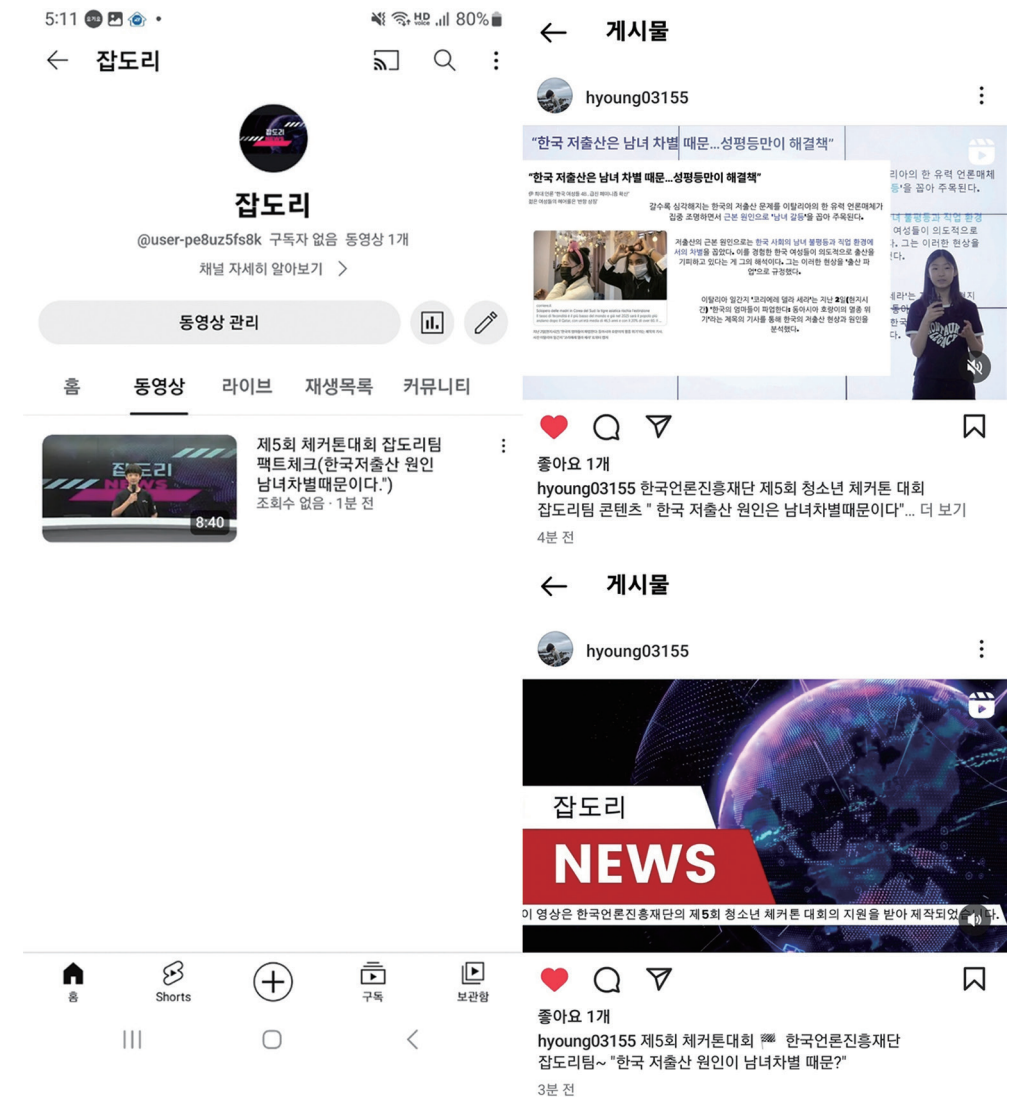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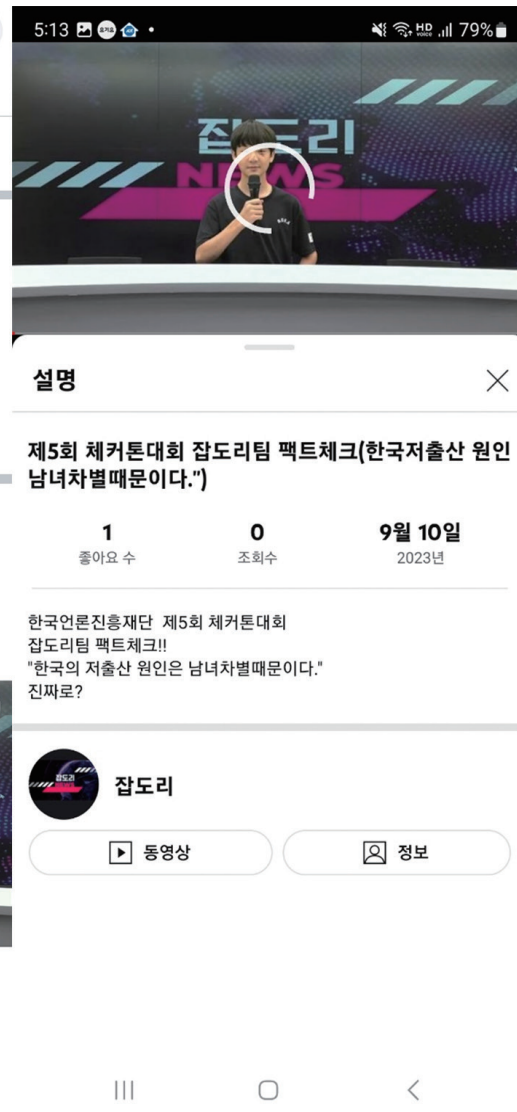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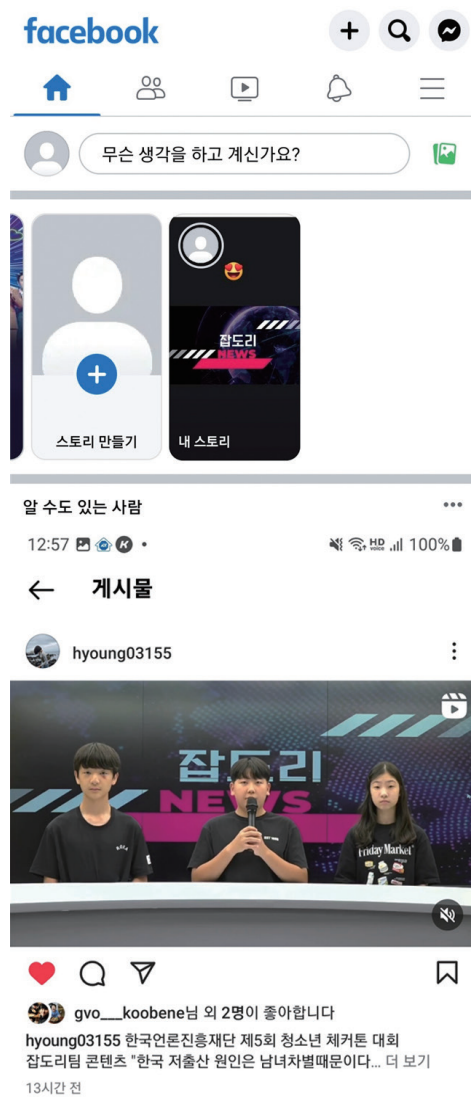
※ 시민들의 인터뷰

엔딩: 저출산 문제는 단순화하거나 과장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팩트체크의 결과를 요약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남녀 차별 때문이라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다. 따라서 기사의 주장은 저출산 문제를 단순화하고 과장한 면이 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 평등 정책과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녀 시민 인터뷰: 뉴스 영상의 중간중간에 남녀 시민 인터뷰를 삽입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관심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본다.

홍보 및 캠페인 활동

- SNS 활용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홍보했습니다.
- 학교 선생님들께 홍보



참여소감

김규민

팩트체크를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하면서 정보의 출처와 신뢰도를 판단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정보가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할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근거를 검증하고, 다른 자료와 비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신후

팩트체크를 통해 남녀 차별이 저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남녀간의 권리와 책임이 공정하게 분담되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또한 직업 환경에서의 차별은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며, 가사와 돌봄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김민재

팩트체커로 활동하면서, 남녀 차별 등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분석하는 기회가 되었다. 팩트체크를 하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지만, 팩트체크를 하면서 그것이 편견이나 오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서예준

팩트체크를 하면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